

수도권 포교 공동화의 현황과 대처방안

개신교·천주교 각축 속 불교는 무대응

① 수도권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는 201130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도권 종교용지 개신교 초강세

지난 8 월 30 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는 2011 년 4 월부터 약 5 개월간 중앙종회 정책모임 무차회와 공동으로 진행해온 연구보고서 「수도권 포교 공동화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내 종교용지의 공급 현황을 평가지표로 삼아 수도권 포교 양상을 파악한 이번 보고서는, 동 연구소의 2010 년 연구 성과인 「조계종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이어 수도권 포교 공동화 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불교포커스>에서는 보고서의 중심내용을 총 4 회에 걸쳐 연재한다.

- 1. 수도권 종교용지 개신교가 초강세
- 2. 불교의 수도권 포교, 무엇이 문제인가?
- 3.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①_포교 전략거점 확보
- 4.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②_제반 관련제도 정비

1. 수도권 종교용지 개신교가 초강세

서울 뉴타운 종교용지에서 개신교 부동의 우위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이하 불미연)이 실시한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 뉴타운 종교용지의 최근 5 년간 공급 내역을 공급대상자의 소속 종교에 따라 분류 시 개신교계 대상자가 분양받은 토지는 32 곳, 천주교계 분양 토지는 1 곳, 불교계 분양 토지는 14 곳으로 나타났다.

이때 필지 수가 가장 많은 은평뉴타운 종교용지의 공급대상자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 분양 필지보다 공급 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은평뉴타운 내에서 1 개의 필지에 대해 둘 이상의 대상자와 분할 면적 당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은평뉴타운 지구에서 거의 모든 신규 분양 종교용지가 복수 대상자에게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다수의 영세 단체가 연합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분양받는 이 지역 종교용지 분양 시장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 뉴타운 종교용지 공급 현황]

사업지구	필지수	공급대상자
------	-----	-------

은평뉴타운	28	개신교	24
		천주교	1
		불 교	14
		8 필지 미정	
길음뉴타운	8	개신교	2
		6 필지 미정	
왕십리뉴타운	6	개신교	6
합 계	42	개신교	32
		천주교	1
		불 교	14
		14 필지 미정	

※ 존치시설 포함

한편 서울 뉴타운 종교용지 공급의 일반 현황으로부터 은평뉴타운 내 존치시설 대상 용지 공급 사례를 빼고 신규 분양으로 범위를 제한해 새롭게 합산함으로써 종교용지 신규 공급 현황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 표를 보면 개신교계 대상자가 존치시설이 아닌 신규로 분양받은 종교용지는 30 곳이며 불교단체의 신규 분양 토지는 8 곳으로 조사됐다.

[서울 뉴타운 종교용지 신규 공급 현황]

사업지구	필지수	공급대상자	
은평뉴타운	19	개신교	22
		천주교	-
		불 교	8
		8 필지 미정	
길음뉴타운	8	개신교	2
		6 필지 미정	
왕십리뉴타운	6	개신교	6
합 계	33	개신교	30
		천주교	-
		불 교	8
		14 필지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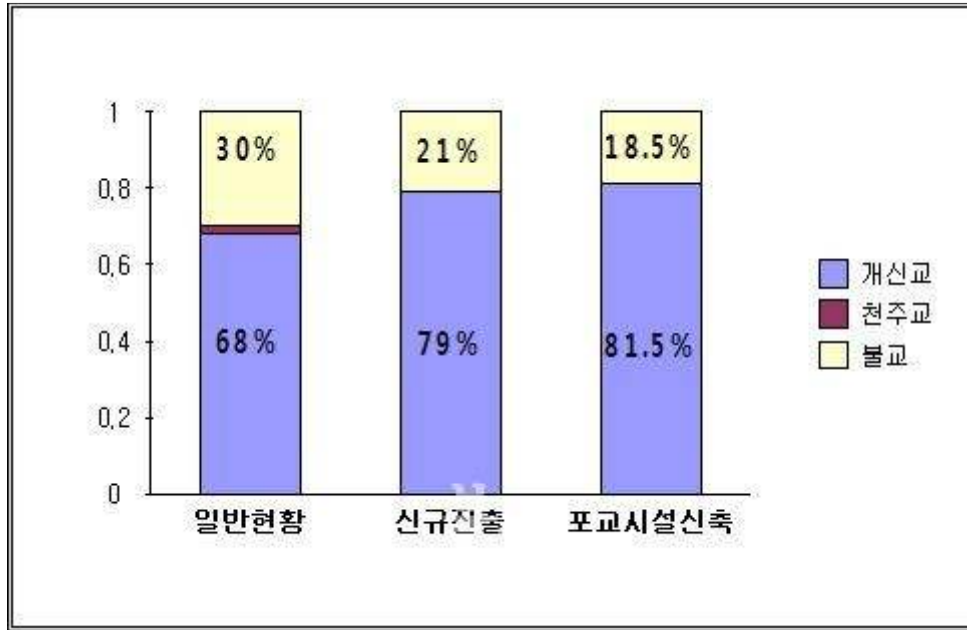
또한 신규 공급 사례 중에서도 계약 면적이 작은 경우를 제하는 방식으로 포교시설 신축 목적 종교용지의 공급 현황을 도출할 수 있다. 건폐율 70% 기준으로 포교시설 신축이 가능한 최소면적 165㎡(50평)에 못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상의 계약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 추려본 결과, 서울 뉴타운 전 지구에서 불교가 5곳만을 분양받은 반면 개신교는 22곳을 분양받아 가시적인 성과물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개신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뉴타운 종교용지 신규 공급 현황 - 포교시설 신축 목적]

사업지구	필지수	공급대상자	
은평뉴타운	19	개신교	14
		천주교	-
		불교	5
		8 필지 미정	
길음뉴타운	8	개신교	2
		6 필지 미정	
왕십리뉴타운	6	개신교	6
합계	33	개신교	22
		천주교	-
		불교	5
		14 필지 미정	

이상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된다. 그래프를 보면 서울의 종교 지형 상에서 개신교가 가지는 부동의 우위가 뉴타운 지구의 종교용지 공급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이 잘 드러난다.

[서울 뉴타운 종교용지의 3대 종교 점유비율]



서울뉴타운 종교용지 공급 일반현황에서 불교의 비중은 30%로 예상보다 큰 수치이지만, 해당지역에 종교용지를 신규로 공급받아 새로 진출하는 경우에 불교 비중은 21%로 줄어들게 되며 그 중에서도 포교시설 신축이 가능한 면적을 공급받은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면 불교 비중이 18.5%로 더욱 낮아진다. 즉 새로운 종교시장에 대한 실제적인 포교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자면, 사찰의 영세성이라는 근본적 한계로 인하여 개신교의 비중은 그래프에 명기된 점유율이 말해주듯 더욱 커지는 반면 그 반대급부로서 불교의 입지는 작아지게 된다.

경기 뉴타운 종교용지 개신교·천주교 선점, 불교는 무대응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사업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있고 그 안에 종교시설용지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종교용지 분양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사업지구는 다음의 표에서 보듯 13 개 지구이다. 이들 지구에서 최근 5 년간 종교용지로 용도 지정된 토지는 총 98 필지로, 이 종교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소속종교에 따라 분류해보면 개신교계 대상자가 분양받은 토지는 57 곳이고 천주교계 대상자가 분양받은 토지는 14 곳이었으며 불교 측 분양 토지는 3 곳, 그리고 천도교나 한국 SGI 등 기타 종교 분양 토지는 5 곳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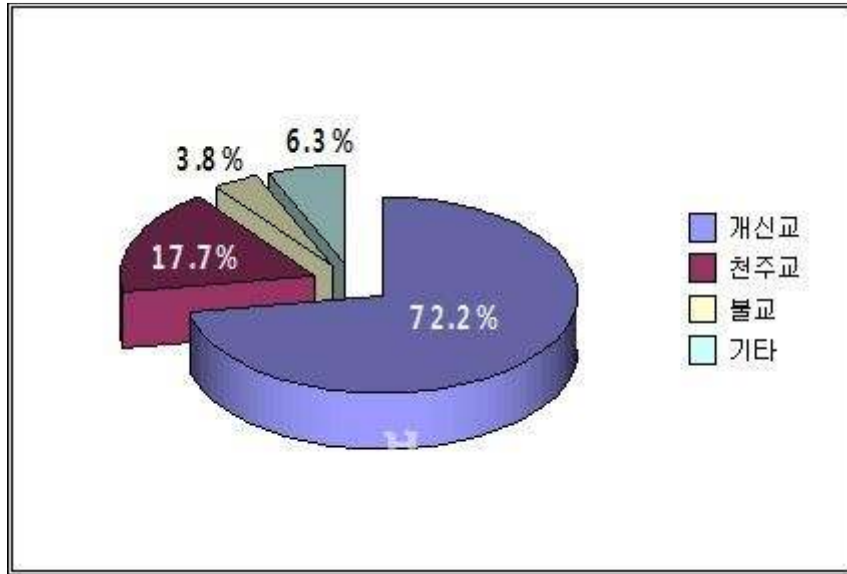
[경기 뉴타운 종교용지 공급 현황]

시	사업지구	필지수	공급대상자	
			종교	필지수
고양	원당	2	개신교	1
			천주교	1
	능곡	9	개신교	3
			천주교	1
			5 필지 미정	

	일산	5	개신교	5	
부천	소사	12	개신교	7	
			천주교	3	
			기 타	2	
	고강	3	개신교	2	
			천주교	1	
남양주	덕소	6	6 필지 미정		
의정부	금의	13	개신교	8	
			천주교	1	
			불 교	1	
			기 타	2	
				1 필지 미정	
	가능	13	개신교	10	
			3 필지 미정		
평택	신장	1	천주교	1	
시흥	은행	3	개신교	1	
			천주교	2	
광명	광명	17	개신교	14	
			천주교	1	
			불 교	2	
군포	군포	7	개신교	2	
			천주교	1	
			4 필지 미정		
구리	인창·수택	7	개신교	4	
			천주교	2	
			기 타	1	
경기 뉴타운 총계		98	개신교	57	
			천주교	14	
			불 교	3	
			기 타	5	
			19 필지 미정		

경기 뉴타운의 현재 종교지형에서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점유율 그래프에서 보이듯 72.2%로, 경기도의 전반적인 개신교 강세가 여기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천주교는 17.7%의 점유율을 기록해 개신교에 이어 두 번째 위치를 점했고 불교의 비중은 3.8%로 3대 종교 중 가장 낮았으며 한국 SGI, 천도교, 승리제단(영생교) 등을 아우르는 기타 종교는 6.3%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경기 뉴타운 종교용지의 종교별 점유율]



위의 경기 뉴타운 종교용지 공급 현황은 존치시설까지 포함된 데이터다. 여기서 존치시설이란 해당 지역이 택지사업 지정을 받기 전부터 존재해온 종교시설로서, 경기 뉴타운 지구 존치시설의 상세 현황은 다음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기 뉴타운 존치시설 현황]

시	사업지구	필지수	공급대상자	
			종교	필지수
고양	원당	2	개신교	1
			천주교	1
	능곡	9	개신교	3
			천주교	1
			5 필지 미정	
	일산	5	개신교	5
부천	소사	12	개신교	7
			천주교	3
			기 타	2
	고강	3	개신교	2
			천주교	1
남양주	덕소	6	6 필지 미정	
의정부	금의	13	개신교	8
			천주교	1
			불 교	1
			기 타	2
			1 필지 미정	

	가능	13	개신교	10
			3 필지 미정	
평택	신장	1	천주교	1
시흥	은행	3	개신교	1
			천주교	2
광명	광명	17	개신교	14
			천주교	1
			불 교	2
군포	군포	7	개신교	2
			천주교	1
			4 필지 미정	
구리	인창·수택	7	개신교	4
			천주교	2
			기 타	1
경기 뉴타운 총계		98	개신교	57
			천주교	14
			불 교	3
			기 타	5
			19 필지 미정	

경기 뉴타운 종교용지에서 존치시설 대상 공급 지정된 곳은 8 개 시 12 개 지구 총 48 곳이며 그 중 개신교계 시설이 32 곳, 천주교계 시설 12 곳, 기타 종교가 4 곳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이들 교회 및 성당 등은 12 개 지구가 뉴타운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각 지역에 자리를 잡고 활동해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존치시설로 지정된 사찰은 하나도 없다는 데에서는 수도권 포교의 장래성에 대한 불교계의 그간의 몰인식이 엿보이며, 특히 한국에서 군소종교로 분류되는 SGI 나 승리제단도 경기 뉴타운 내에 존치시설로 지정된 곳이 있다는 사실은 불교계의 각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수도권 신도시 종교용지에서 불교 전무

서울·경기·인천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등을 모두 포괄하는 수도권 내의 개발지역에서 지난 5년간 공급된 종교용지는 총 192 필지로, 그 중 개신교계 대상자가 공급받은 종교용지는 74 곳이며 천주교계 대상자가 받은 용지는 15 곳, 원불교계와 유교 대상자가 공급받은 토지는 각각 1 곳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종교용지 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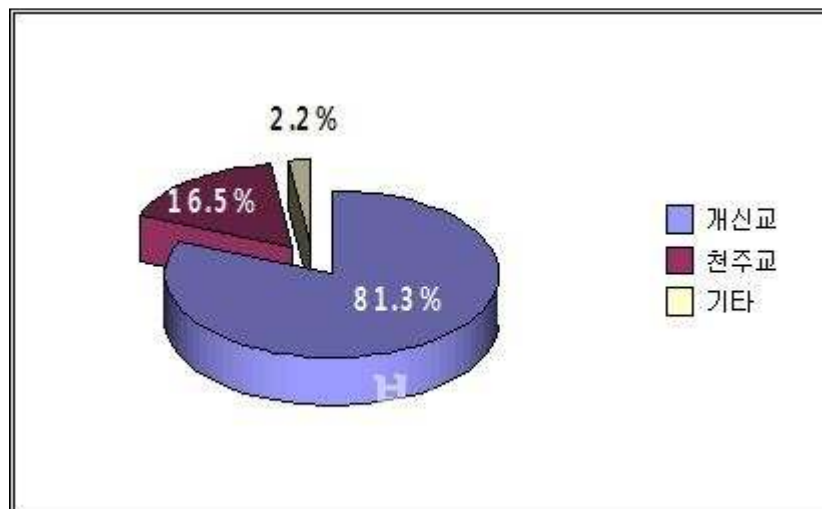
지 역	필지수	공급대상자	
		개신교	
서 울	2	개신교	1
		1 필지 공급미정	
경 기	112	개신교	53
		천주교	14

		45 필지 공급미정·지번미확인 등	
인 천	23	개신교	9
		14 필지 공급미정·지번미확인 등	
신도시	55	개신교	11
		천주교	1
		기 타	2
		41 필지 공급미정·지번미확인 등	
합 계	192	개신교	74
		천주교	15
		기 타	2
		101 필지 공급미정·지번미확인 등	

※ LH 공사, 경기도시공사 제공 자료

즉 수도권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종교용지에서 공급대상자가 선정된 91 필지의 토지 가운데 81.3%에 달하는 74 필지가 개신교 측에 분양된 데 비해 불교계는 종교용지 공급률 0%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였다. 종교용지 분양이 지역 종교시장 내 점유 지분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지역에서 불교계가 공급받은 종교용지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수도권 종교지형 상의 불교 지분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종교용지의 종교별 점유율]



수도권의 신도시·택지개발지구 종교용지 분양시장에서 개신교가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과 무시할 수 없는 천주교의 점유율, 그리고 기타 군소종교 비중에도 못 미치는 불교의 현 상황은 위의 각 종교별 점유율 그래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876>

정보력 미약·개척 포교 소극적

② 불교의 수도권 포교,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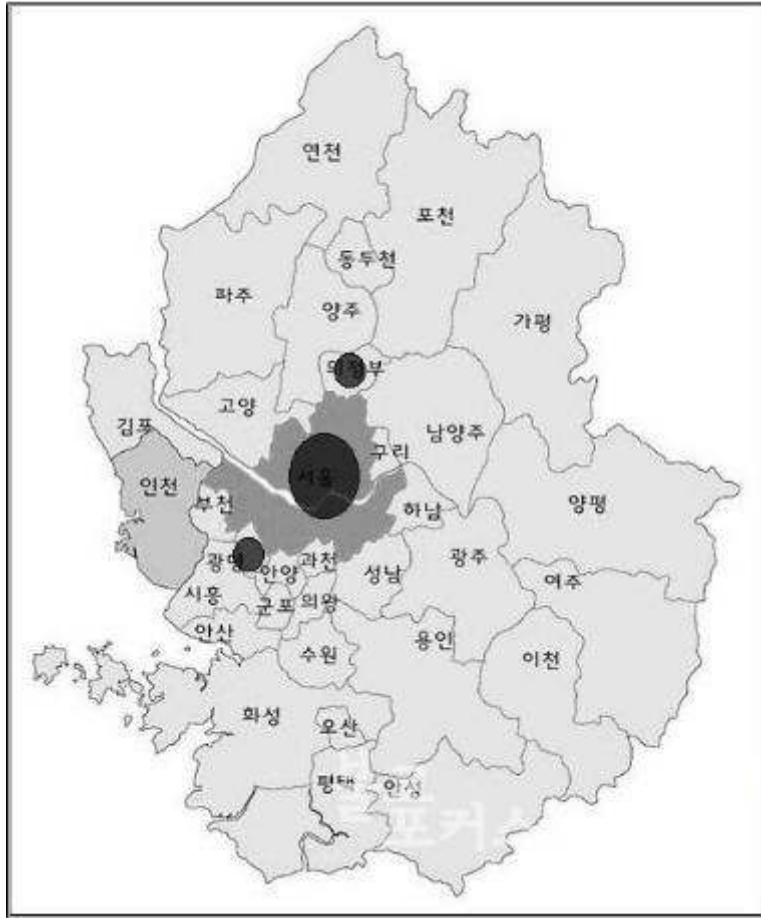
지난 8월 30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는 2011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중앙총회 정책모임 무차회와 공동으로 진행해온 연구보고서 「수도권 포교 공동화의 현황과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내 종교용지의 공급 현황을 평가지표로 삼아 수도권 포교 양상을 파악한 이번 보고서는, 동 연구소의 2010년 연구 성과인 「조계종 교구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이어 수도권 포교 공동화 실태를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실천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불교포커스>에서는 보고서의 중심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수도권 종교용지 개신교가 초강세
2. 불교의 수도권 포교, 무엇이 문제인가?
3.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①_포교 전략거점 확보
4.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②_제반 관련제도 정비

개신교는 신흥도시 집중화, 천주교는 교구제... 불교만 포교전략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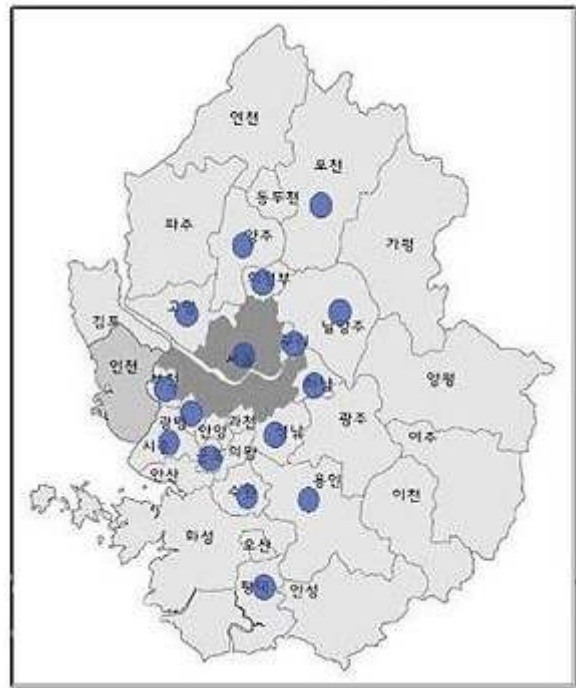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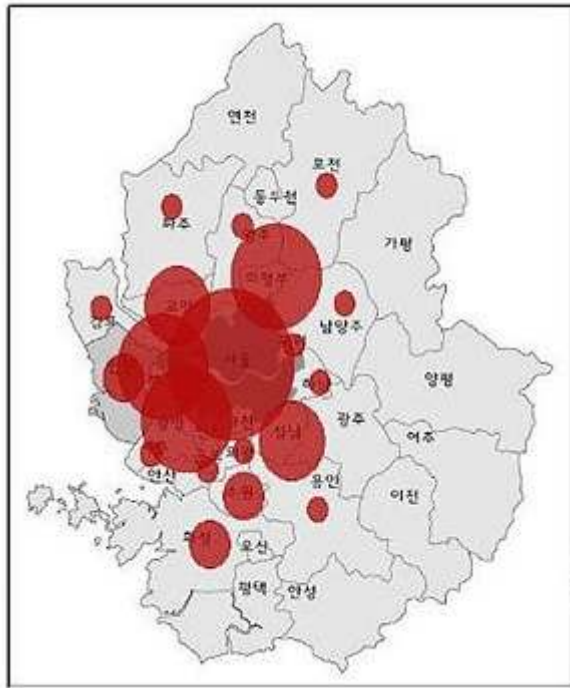
불미연의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서울·경기 뉴타운과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종교용지 공급 현황을 모두 합산한 수도권 전역의 종교용지 공급 분포를 각 종교별로 지도 위에 표기해보면 다음 분포도와 같은 양상이 관찰된다.

[불교의 종교용지 공급 분포]



[개신교의 종교용지 공급 분포]

[천주교의 종교용지 공급 분포]



개신교계에서 종교용지를 공급받은 건수, 즉 확보한 종교용지의 규모를 대표하는 붉은 원은 대체로 위치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그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인구·경제·문화 방면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신흥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개신교의 전략이 쉽게 눈에 띈다. 한편 천주교계가 분양받은 종교용지를 뜻하는 푸른 원을 보면 크기가 작은 원들이 균일한 밀도로 분포하는 모습을 보여, 교구제에 기반해 각 지구마다 1~3 곳의 성당을 배치하는 천주교의 포교 전략이 잘 반영된다.

그러나 불교의 양상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불교계가 확보한 종교용지를 대표하는 검은 원을 보면 수도권 지도에서 오직 세 곳에 불과해 특별한 포교 전략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울에서의 불교계 공급건수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인데, 이는 은평뉴타운 내 불교의 종교용지 공급에 있어서 존치시설로 지정된 사찰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그 점을 감안한다면 분포도 상 서울 뉴타운에서 불교 면적은 불교의 실제적 교세보다 다소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결국 수도권역에서 불교의 포교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불교가 타 종교에 비해 얼마나 열세에 처해 있는지가 이상의 수도권 종교용지 공급 분포도를 통해 단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불교는 정보 수집과 대응에 약하고 포교시장 개척에 소극적
수도권 포교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비전 부족해**

이러한 불교의 포교 공동화 현상이 시사하는 바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찰 수의 부족으로, 수도권 소재 사찰의 절대 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서울 근교 주요도시 및 신흥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사찰의 수는 너무 적은 게 현실이다.

또한 그나마 개발지구에 있는 사찰들도 도심에서 원거리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낮고 포교에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 역시 불교의 포교 공백 상태에서 관찰되는 문제이다.

세 번째는 행정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찰이 많다는 것으로, 개발사업 주관처가 내는 공고 등과 같은 행정정보의 내용을 적기에 수집·인지할 여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적절할 토지를 매입할 자금력이나 관련절차 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등의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시사점 그 네 번째는 포교기반이 없는 지역으로의 진출에 대한 소극성이다. 실제로 기존 사찰 수나 불교인구가 적고 포교활동이 힘든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규진출 사례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신교와 천주교에 대한 열세로, 개신교의 중요지역 선점전략에서 오는 파급력과 천주교의 교구제에서 비롯되는 조직력에 대응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불교만의 포교 전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출 가능한 시사점은 미래적 안목과 장기 비전의 결여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수도권 진출 및 포교활동 역사가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에 비해 수도권 성장잠재지역의 포교시장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수준은 그간 매우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879>

'조계종 지역연합회' 설립해 공동대응 해야

③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 1 _ 포교 전략거점 확보

1. 수도권 종교용지 개신교가 초강세
2. 불교의 수도권 포교, 무엇이 문제인가?
3.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①_포교 전략거점 확보**
4.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②_제반 관련제도 정비

앞서 살펴본 불미연의 조사·분석 내용과 그로부터 도출해낸 시사점들을 토대로, 이제부터는 수도권 포교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포교 활성화 방안은 크게 포교 전략거점 확보와 제반 관련제도 정비의 두 방향으로 나뉜다. 먼저 포교 전략거점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이다.

인천과 성남에 종단 직영 거점사찰 마련해야

첫 번째로 중앙종단의 주도 하에 수도권 포교의 거점이 될 사찰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함에 있어서는 재원 문제와 입지 문제를 각각 따져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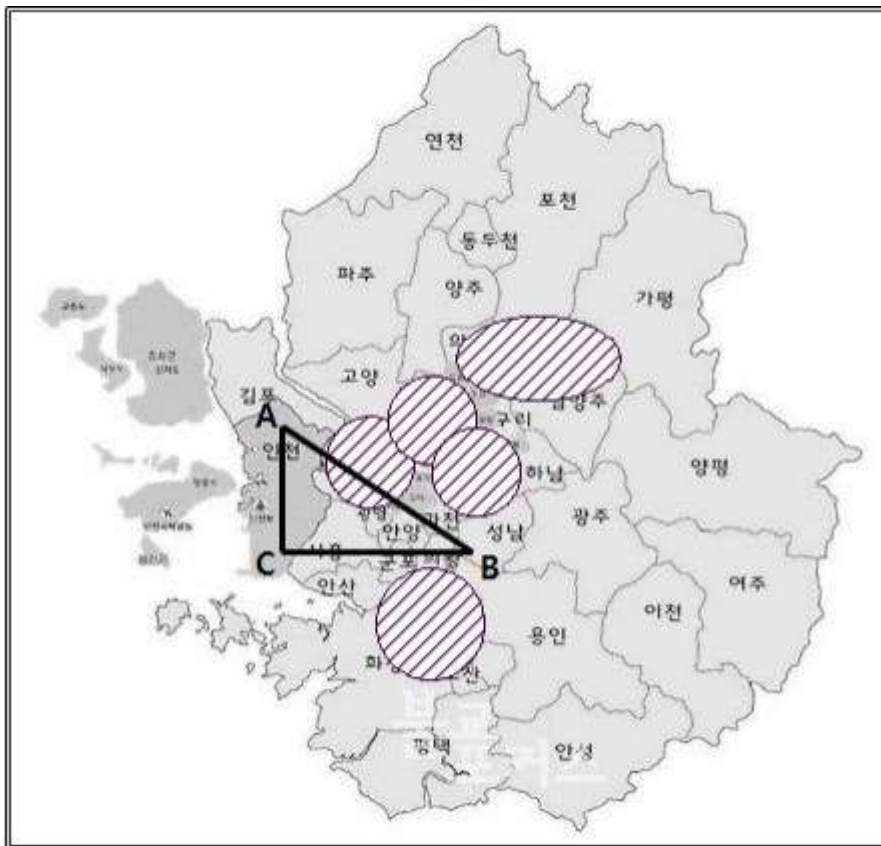
우선 사찰 건립에 쓰일 재원은 사찰부동산관리법 제 18 조에 의해 부동산 처분 시의 납부금(공찰의 경우 처분금의 20%, 사설사찰의 경우 처분금의 10%)으로 구성된 중단목적사업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최근 10년간 주요 본·말사의 토지처분금이 약 2천억 원이고 여기서 파생된 중단 적립 납부금이 190억 원 규모인데도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며, 이는 중단의 예·결산 체계 상 사찰토지처분금이 시설특별회계 수입으로 편입되어 역사기념관이나 전법회관 및 기타 중단 특별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지출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중단 사찰 처분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다시 용지 매입과 사찰 건립에 환원한다는 사찰부동산관리법 제 18 조 제 1 항 1 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사찰토지처분금의 회계를 별도로 독립시킨다거나 최소한 납부금의 용도를 종교용지 매입에 한정하는 의도로의 행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포교 거점사찰이 들어설 위치는 수도권 내에서도 포교 공백이 특히 심각한 곳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사찰의 수가 대단히 적고 사찰 대비 인구수가 많은 인천시와 경기 남부 지역이 중단 거점사찰의 입지로 바람직하다. 한편 서울의 조계사와 봉은사, 국제선센터 및 경기도의 제 2 교구본사, 제 25 교구본사를 현존하는 수도권 포교 전략거점으로 본다면 수도권 포교활동이 미칠 수 있는 면적의 현 수준은 아래 그림의 빗금 친 부분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도권 포교 거점사찰 입지도]



※ 조계종의 수도권 포교 범위

그림 상 빗금 친 부분이 의미하는 수도권 포교의 현재적 포괄 영역은 서울시내의 세 거대 사찰과 의정부시에서 봉선사까지를 아우르는 경기 북부, 그리고 용주사 중심의 수원/화성시 일대이다. 이때 빗금 친 영역이 닿지 않는 인천시와 경기 남부 위성도시군(群)에 이르는 띠 모양의 지역은 포교 공동화가 극심한 곳으로서, 이 포교 공백 지역으로 인해 현재 수도권에서의 종단 교세 범위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이지 못하고 서울·경기 북부와 수원/화성시의 두 영역으로 분리되는 단절이 발생한다. 고로 거점사찰 설립에 적합한 세 곳의 입지를 선정해 이 포교 공백 지역을 효과적으로 커버하는 '포교의 삼각형'을 그려볼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바로 위 그림의 삼각형 ABC 다.

입지도에 표시된 삼각형의 꼭짓점 A는 인천 북부의 인구밀집지역인 부평구나 계양구 등지를 가리킨다. 인천광역시와 서울과 부산에 이은 우리나라 제 3의 도시이자 대표적인 포교 공백 지역으로, 수도권 포교를 위한 첫째 전략거점으로서 인천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꼭짓점 B가 의미하는 성남시, 그 중에서도 분당·판교 신도시 지역은 경기도 내 도시들 가운데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고도의 성장세를 보이며 수도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곳으로서, 향후 종단의 수도권 포교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다.

꼭짓점 C는 인천 남부 인구밀집지역인 연수구나 남동공단 등지로, 만약 인천시의 북부와 남부에 각각 1곳씩 포교 전략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인천광역시가 종단의 각종 포교 전략 실험의 장으로 운영될 장기적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에 더해 인천 독립 교구 신설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포교의 삼각형'이라는 가상의 영역을 통해 인천시와 성남시뿐만 아니라 삼각형의 세 변이 지나가는 부천, 광명, 안양, 과천, 군포 등의 도시들 역시 새로운 포교 영역의 내부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종국에는 서울·경기 북부와 수원 일대로 양분되어 있던 기존의 교세 범위를 큰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하는 포교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지역 교구본사도 수도권에 거점사찰 세울 수 있어

중앙종단 외에 역량을 보유한 지역 교구본사가 직접 수도권에 사찰 및 포교시설을 설립하는 방식은 수도권 포교 공동화 현상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다. 사찰토지처분금의 평균 약 15%(공찰의 경우 처분금의 20%, 사설사암의 경우 처분금의 10%) 상당 금액이 종단에 납부된다고 했을 때 그 잔여 처분금은 해당지역 관할 교구본사에 적립되며, 바로 이를 거점사찰 건립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찰토지처분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 진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교구본사에서는 사찰 설립 지역과 규모, 포교활동 전략과 예상 효과 등의 구체적 청사진이 들어간 거점사찰 설립안을 중앙종단 측에 제출한다. 둘째, 중앙종단에서는 복수의 교구본사가 제출한 사찰 설립안을 심의하고 종단이 판단하는 전략적 입지에 최적의 규모와 운영 형태를 갖춘 사찰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역 배분 및 선정 과정을 진행한다. 셋째, 종단은 선정된 안을 제출한 본사에 사찰 설립 소요 재원의 일정 비율을 종단 적립 사찰토지처분금 계정에서 지급한다. 넷째, 교구본사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종단은 거점사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분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사찰 설립안에 대한 종단의 심의는 기존의 중앙행정조직과 분리된 별도의 심의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종단은 교구본사의 거점사찰 설립을 지원함에 있어 전문 심의기관으로 ‘(가칭)사찰설립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계종 지역연합회 통한 단위사찰 참여 유도 바람직

지역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대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주체는 해당 지역에 자리 잡은 단위사찰이다. 고로 지역 사찰들의 연합체 구조를 조직,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그로부터 유의미한 포교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종단 주도의 거점사찰 설립 방식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올해 초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발족해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포교 조직 및 체계가 파편화된 수도권역에서 조계종사찰 공동협의체 형태의 ‘조계종 지역연합회’를 정식으로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해당 지역 내 포교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종단적 과제는 지역연합회 내 사찰 개개의 역량을 한데 모음으로써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종단은 이에 대해 ‘(가칭)사찰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찰토지처분기금 계정 상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충분하다.

또한 '조계종 지역연합회' 활성화 방안은 사찰조직과 소재 지역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신행/직능모임과의 연계성을 높여, 각 교구의 관할 범위가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행 교구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884>

교구분할·사찰설립 사전허가제 도입 필요

④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 2_ 제반 관련제도 정비

2011년 09월 06일 (화) 15:39:06

하은지 /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

1. 수도권 종교용지 개신교가 초강세
2. 불교의 수도권 포교, 무엇이 문제인가?
3.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①_포교 전략거점 확보
4.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②_제반 관련제도 정비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 중에서도 포교 전략거점 확보를 위해 모색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들을 소개한 지난 회에 이어, 이번에는 제반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 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인천 별도교구로 분구하고 사찰 설립 시 사전허가제 도입해야

앞서 수도권 포교 공동화의 대안으로 거론된 포교 전략거점 확보 방안들은 공통적으로 종단의 현 교구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렴된다. 결국 궁극적인 포교 활성화 방안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현재의 직할교구를 재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불미연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직할교구 재편안의 첫 번째 내용은 400 사찰 이상이 속한 비대한 규모의 직할교구를 분구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와 자치행정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천 지역에만 단기적으로는 중무 분소를 설치하여 포교 방치상황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교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직할교구 재편의 세 번째 내용은 사찰 설립 시 ‘(가칭)사찰설립심의위원회’로 대표되는 종단의 사전허가절차를 도입하여 마구잡이식 진출을 경계하고 각 사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별 토지할당 및 공급가격 인하로 분양시장 진입장벽 낮춰 공급받은 용지 타종교에 양도하는 행위도 제한

지금까지 살펴본 수도권 포교 공동화 대처방안의 마지막은 현행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등 종교의 지역분포 균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제화 방안은 크게 사회법과 종법의 두 갈래로 구분되며, 여기서 다시 각각 세 가지씩 하위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회법 제·개정의 첫 번째 세부 방안은 종교용지 공급에 해당지역 종교인구 비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100% 추첨에 의한 토지 분양 방식을 ▲존치 지정된 종교시설 우선 공급 ▲신규분양 용지의 은 종교인구의 각 종교별 신도 수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공급대상자 선정 ▲신규분양 용지 중 나머지는 기존 추첨 방식에 의한 공급대상자 선정이라는 3 원칙으로 개정해, 특정 종교의 종교용지 독식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종교인구 구성비에 따른 종교별 할당을 줌으로써 종교 간 형평성과 지역민의 원활한 실행활동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법 제·개정 두 번째 세부 방안은 종교용지 조성원가의 한 구성요소인 용지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지 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에서 용지부담금을 완화 또는 면제하는 안을 통하여 공급대상자인 단체들로 하여금 다소 낮은 가격에 토지 취득이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민의 종교 활동을 종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종교 할당과 용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실현으로 종교용지를 성공적으로 분양받았다 해도, 그 토지를 타 종교단체에 매각할 경우 종교 지역분포 균형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종교인구 비례기준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종교용지 신규분양분의 50% 면적에 대해서는, 지정 할당된 종교가 아닌 타종교 소속의 법인·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 당초의 근본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교 인센티브제와 사찰토지처분금 회계 독립, 금융대출상품 개발 등 종단 차원에서 종교용지 매입 지원방안 강구

다음은 우리 종법 상의 법제화 방안이다. 종법 제·개정의 첫 번째 하위 방안은 수도권 포교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찰 주지스님의 종교용지 취득과 같은 수도권 포교 실적을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지역에서 포교 성과를 낸 사찰에 대해서도 중앙분담금을 일정 비율 경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각 사찰들이 수도권 포교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종법 제·개정 두 번째 안은 사찰토지처분금의 독립적 회계 관리이다. 종단의 현행 회계항목 편성 및 운영 상

사찰토지처분기금은 아래 표에 나타나듯 시설특별회계의 수입에 포함되어 여러 정책사업에 지출된다.

[조계종 시설특별회계 구성항목]

총 수입	총 지출
사찰토지처분금	역사기념관 건립
전년도 이월금	불교문화사업단 건립 및 운영
기타 수입	전법회관 건립
	기타 지출 (타 회계 전출 포함)

따라서 종단 보유 토지를 매각해서 발생한 수입이자 종단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 재원인 이 기금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용지 신규매입과 사찰 건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사찰토지처분금 회계 독립안의 요지다. 그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토지처분기금 사용처를 종교용지 매입에 한정하도록 종법을 개정하고, 기금의 관리와 처분을 심의 감독할 기구를 신설하며, 나아가 사찰토지처분금을 단독 특별회계로 재편성하는 것이 있다.

종법 제·개정의 세 번째 하위 방안은 종교용지를 공급받으려는 사찰에 대한 지원 방편으로 금융대출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 종교용지 분양시장에서의 개신교 강세는 제 2 금융권 중심으로 교회 대상 대출상품이 다수 출시된 것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도 중앙종단과 금융권의 연계로 대출상품을 개발해 자금 동원력이 약한 사찰들의 수도권 진출을 간접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종단이 중간보증자로서 은행과 사찰을 중계해 각 사찰들이 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불미연의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이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885>